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제6장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

- 제1절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제2절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
- 제3절 서민 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제4절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신산업 육성
- 제5절 수출 200억불 달성을 기반 강화





제1절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1.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서민생활안정 도모
3. 생동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
4. LNG 조기 공급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1.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가. 추진배경

대한민국 소통과 통합의 중심지로 중부권 경제복합거점 형성을 위하여 세종시, 대덕 특구, 인접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를 통하여 X축 경제권역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 외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BIT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또한, 급변하는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제마인드 제고와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민경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충북경제와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경제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복과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도내 지역경제동향을 수록한 월간 충북경제 발간을 통해 지역경제 정보를 제공하여 각 지역 경제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주요성과

(1)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추진은 3월에 개발계획 수정(안)을 지경부에 제출하고 4월 및 5월에 지경부 민간평가단에게 통합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통한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11월에 지경부로 제출하였다. 또한 10월 말 국토부에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다.

▶ 타 구역 대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비교 우위

- 개발계획이 수립된 최소 면적 지정으로 국비부담 최소화
- 바이오·솔라밸리 등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 우수
- BT·IT·GT 등 융합산업 클러스터화로 세계경쟁력 확보

(2) 범 도민 경제교육 지속 추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도민 경제교육을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여성·주부, 노동자, 노인, 학부모, 상설교육, 전문강사, 교사, 다문화가정,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도민경제교실을 25회 1,115명에 대해 운영하였고,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은 방문(강의, 체험), 전통시장체험캠프, 유아경제교육, 경제캠프 등 146회 10,06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사 경제교육 직무연수도 2회 83명을 실시하였다.



청원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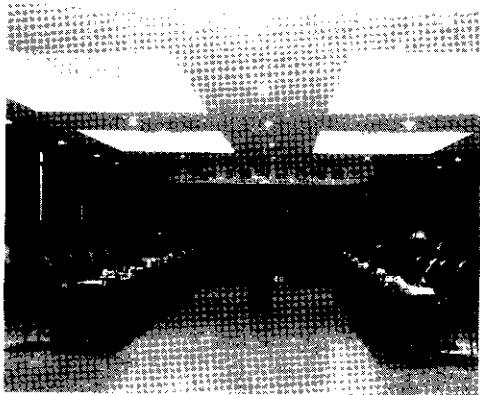
청주 수곡시니어클럽

(3) 경제주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도내 지역경제 기관단체의 주요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유관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목요경제회의를 7회 개최하였고,

충북경제포럼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과 회원간 교류를 위한 10회 개최하였으며, 권역별 세미나를 4회 개최하여 충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충청권경제포럼을 2회(대전, 충남 개최) 참석하고 1회 개최하여 충청권경제 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회를 출범하고 23개 기업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내 동반성장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목요경제회의 9월



충북경제포럼 131차(12월) 월례세미나

(4)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지역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지표인 충북경기종합지수(동행·선행) 발표(매월 1회) 12회와 월간충북경제 발간(매월 1회), 시군 경제 담당자 정책 간담회(1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분석 및 정책수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통계로 본 충북 100년의 경제 변화 분석」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도내 경제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짚는 계기가 되었다.

다. 발전방향

오송 바이오밸리·항공정비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충북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안)을 수정·보완 및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확대하여 도민의 경제마인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목요경제회의와 충북경제포럼 등을 통한 경제기관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내 주요경제지표를 이용한 지역경기 동향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작성자 : 생활경제과 생활경제팀 김선호 / ☎ 220-3211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 ⇒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목표로 선정
- ⇒ 추진성과
 -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 제출, 지경부 관계자 등 사전 현장답사 실시
 - 내수활성화 시책발굴 추진 : 159개 과제
 -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 위원 19명
 - 동반성장 상생협약 체결 : 23기업
 - 도민경제교육 실시 : 3개 부문 11,262명
 - 목요경제회의 7회, 충북경제포럼 월례세미나 10회, 최신경제정보 주1회 제공, 권역별 세미나 4회, 충청권경제포럼 개최(1회) 및 참석(2회)
 - 충북경기종합지수 12회, 월간 충북경제발간 12회, 시군 경제 담당자 정책 간담회 1회, 「통계로 본 충북 100년의 경제변화 분석」 책자 발간
- ⇒ 향후 지역경제 선진화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서민생활안정 도모

가. 추진배경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자활기회 부여를 위하여 저금리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지역물가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상담, 홍보 등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성과

자금난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업체당 최고 5천만원,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4차에 걸쳐 1,436건 345억원을 4%대의 저리로 지원을 하였고, 한국자산공사와 협약체결('11.4.7)을 통하여 저신용저소득 계층 등 금융 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 서민금융지원을 실시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대형마트, SSM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주, 제천에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2개소 35억원)하여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내 12개 시군을 55개 상권으로 나누어 상권특성, 업종 현황, 유동인구, 점포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상권분석 자료를 발간하여, 소상공인의 신규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의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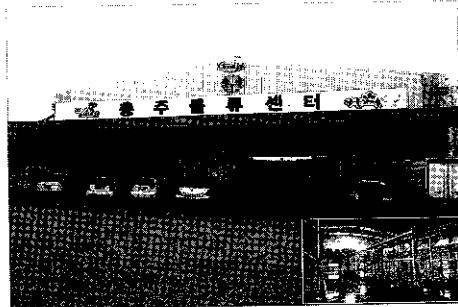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와 닿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지역물가관리시스템을 활용 시·군별 공공요금을 월 1회 비교·공시하여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억제시키는 한편,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소비자물가동향 조사를 52회 실시하여 공표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물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소비자피해 예방 및 주권 확립을 위하여 도내 각 시·군에 소비생활센터(29개소), 이동소비생활센터(40회)를 운영하는 한편,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을 16,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 예고제 운영 및 정보 제공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계시판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주의 예고를 334개소에서 실시하였고, 인터넷 817회, 언론 62회의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하였다.

대부업체의 법정이자 위반행위 및 채권추심행위 적정여부 등 대부업 운영실태 점검 및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하여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에 노력하였다.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약식



충주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다. 발전방향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자금지원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청주·청원권에 추가로 건립하여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공공요금 모니터링 및 물가모니터를 활용한 생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물가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및 소비자 권리 구제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작성자 : 생활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지원팀장 안성희 / ☎ 220-3241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추진

-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1,436건, 345억 원
- ⇒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2개소(충주, 제천)
- ⇒ 소상공인 상권분석 실시 : 12시군, 55개 상권
- ⇒ 지역물가관리시스템 활용 시군별 공공요금 비교 공시 : 월 1회
- ⇒ 소비생활센터 (29개소), 이동소비생활센터 (40회) 운영
- ⇒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시군 순회 소비자교육 : 16,083명
- ⇒ 향후 물가모니터링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홍보 지속 실시

3. 생동감 넘치는 전국 최고의 전통시장 육성

가. 추진배경

대형유통업체의 상권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 도민이 참여하는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계획을 수립·추진함은 물론 쇼핑환경 개선, 경영혁신 시책 등을 전개함으로써 민선5기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을 앞당기고자 노력하였다.

나. 주요성과

(1) 고객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알뜰시장 고객쉼터 조성)



(청천시장 공동판매장 건립)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19시장에 152억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4개소,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3개소, 화장실 1개소, 고객쉼터·문화광장 2개소, LED조명·전광판 설치 6개소,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시설 10개소를 지원하여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다.

(2) 경영혁신 시책 추진으로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

전 도민이 참여하는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 선포식(‘11.8.17)」에서 대기업 2개소 등 5개 기관-4시장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함으

로써 대기업 등에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상생의지를 피력하여 전 도민 참여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관공서·상인회가 중심이 된 1기관1시장 자매결연 유치 노력으로 237개소('10)에서 424('11)개소로 187개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잠재고객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지사가 참여하는 「전통시장 상인 만나는 날」을 매월 운영하여 서민경제탐방, 장보기, 상인격려 등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전통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육성(1개시장, 12억원), 공동마케팅·특가판매(14시장),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장을 위한 녹색시장·클린점포 육성(5시장 25점포), 지역 관광자원·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시장투어(105회 14,000여명),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액대출(21시장 2,245백만원) 지원 등의 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11만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9.29 ~ 10.1, 3일간, 청주체육관 광장, 86부스) 및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10.21 ~ 23, 3일간, 대구 엑스코, 9시장)를 통하여 도내 우수시장·우수상품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제5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막)



(제5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관람)

(2) 상인교육을 통한 경영마인드 의식 개혁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이렇듯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을 위한 시책사업과 더불어 상인대학(4시장), 맞춤형 교육(38시장), 자문·점포지도(22시장), 상인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8시장), 우수점포 발굴·육성(16점포) 등을 통하여 상인의식개혁, 자구노력으로 더욱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된 전통시장의 모습을 지역 민영방송을 통하여 매주1회 방영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다. 발전방향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2년도에 152억원을 투입하여 고객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인근 상권을 대단위로 연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을 청주 육거리시장·성안길상점가·남주동시장에 걸쳐 2014년까지 123억원을 투입하여 청주중심가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2015년까지 5개소에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자립형 시장을 육성해 나가고, 전통공연·체험, 추억의 영화상영 등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의 중심축으로 거듭나 민선 5기 "살맛나는 서민경제" 실현에 일역을 담당하고자 한다.

작성자 : 생활경제과 소상공인시장지원팀장 안성희 / ☎ 220-3241

생동감 넘치는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 19시장 152억 원
-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 전통시장 상인만나는 날 운영(20시장)
특성화시장육성(1개시장 12억 원), 공동마케팅·특가판매(14시장),
녹색시장·클린점포육성(5시장 25점포), 시장투어(105회 14천여명)
- 상인교육을 통한 자구노력 의식개혁으로 경쟁력 강화 : 상인대학
(4시장), 우수점포별굴육성(16점포), 시장자문·점포지도(22시장),
전문인력배치(8시장) 등

⇒ "생동감 넘치는 전국 제일의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심축으로서 일역을 담당

4. LNG 조기 공급·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가. 추진배경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BRICs 등 신흥공업국들의 에너지소비 증가로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값싸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조기 확대공급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 확대로 주민 에너지비용 절감과 아울러 기업유치 활성화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선도 및 주민 에너지절약 홍보 등을 통한 범도민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나. 주요성과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0년 50.0%에서 2011년 52.4%로 확대되었으며, 공급지역은 2010년도 7개시·군(청주, 충주, 제천, 청원, 증평, 진천, 음성)에서 2011년 3개 군(영동, 괴산, 단양군)으로 확대 공급되어 총 10개 시·군에 공급하고 있음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사업면에서는 3개 분야에 총 18,26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분야별로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24개 사업 11,614백만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338가구 단독주택 5,729백만원), LED등 지역에너지 절약사업(5개 사업 917백만원)

공공부문에서는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실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승용차 요일제 및 5부제 운행,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경차보급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에 솔선 실천하였음.

또한 범도민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북 에너지의 날 행사’ 개최,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언론 보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다. 발전방향

2012년 말까지는 현재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으로 남아있는 보은·옥천군까지 공급 할 계획이며, 아울러 장기적으로 2031년까지는 도내 전 시·군 읍·면소재지까지 87%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렇게 되면 충북도가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전 시·군 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는 것임.

아울러, 기존에 추진해오던 에너지 절약사업은 물론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범도민 에너지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작성자 : 생활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오성일 / ☎ 220-3251

제2절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

1.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3. 첨단 해외기업 유치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 기업애로 해소 및 약소기업 지원 강화



1.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

가. 추진배경

농공단지는 1980년대 중반 수입개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업소득한계론의 대안으로 농공단지개발 등을 통한 획기적인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으로 농어촌지역에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는 41개소 5,634천m²에 달하고 2개소 472천m²를 조성 중에 있다.

산업단지는 기업의 집단화 유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현재 16개소 27,231천m²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보은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41개소 29,001m²를 조성 중에 있다.

나. 주요성과

(1) 조성중인 농공단지

① 제천 양화 농공단지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일원에 위치한 양화 농공단지는 2009. 9월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10. 11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총사업비 13,676백만원을 투입, 148천m²의 조성 면적에 조립금속, 전기전자, 식음료 및 제천시의 주력산업인 한방관련업체를 유치 할 예정이다.

②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또한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는 괴산군에서 2009. 12월 지구지정하고 323천m²에 26,000백만원을 투입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음식료품, 기타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

(2012.6.30 현재)

시 군	단지명	위 치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계	41 개소	5,634,208	162,221		
충주 (4개소)	주 덕	주덕 삼청	158,857	2,264	86 ~ 87	
	가 금	가금 가홍	248,208	2,670	88 ~ 89	
	가 주	충주 가주	131,208	2,293	87 ~ 88	
	용 탄	충주 용탄	191,799	5,015	89 ~ 90	
	봉 양	봉양 주포	133,098	3,265	90 ~ 91	
제천 (5개소)	금 성	금성 양화	86,023	1,795	88 ~ 89	
	송 학	송학 시곡	90,067	2,340	89 ~ 91	
	고 암	제천 고암	168,073	3,506	89 ~ 91	
	강 저	제천 강제	141,776	2,727	87 ~ 88	
	내 수	내수 도원	105,432	1,649	87 ~ 89	
청원 (3개소)	현 도	현도 죽전	67,937	1,631	87 ~ 88	
	부 용	부용 금호	197,372	2,989	87 ~ 88	
	보 은	보은 금굴	70,026	1,500	88 ~ 89	
보은 (3개소)	장 안	장안 구인	280,879	6,048	90 ~ 92	
	삼 승	삼승 우천	151,014	5,420	94 ~ 97	
	옥 천	옥천 동안	282,235	8,685	89 ~ 90	
옥천 (6개소)	구 일	옥천 구일	132,492	6,064	97 ~ 99	
	동 이	동이 적하	161,029	2,676	87 ~ 88	
	청 산	청산 효목	65,390	1,624	88 ~ 89	
	이 원	이원 건진	141,618	6,472	91 ~ 94	
	의료기기	옥천 가풍	144,845	14,717	07 ~ 11	전문
	영 동	영동 계산	70,999	1,494	86 ~ 87	
영동 (3개소)	용 산	용산 백자전	262,352	3,413	87 ~ 88	
	법 화	용산 법화	123,003	4,995	96 ~ 98	
	증 평	증평 용강	89,682	2,125	87 ~ 88	
증평 (2개소)	도 안	도안 광덕	93,210	1,631	86 ~ 87	
	진 천	진천 신정	57,734	844	84 ~ 86	
진천 (7개소)	덕 산	덕산 한천	91,183	1,402	87 ~ 88	
	초 평	초평 용정	135,664	1,883	87 ~ 88	
	문 백	문백 사양	123,591	6,481	01 ~ 02	전문
	이 월	이월 노원	127,283	5,872	95 ~ 97	
	광 혜원	광혜원 주현	89,721	1,404	87 ~ 89	
	이월전기전자	이월 신월	328,523	19,500	04 ~ 08	전문
	괴 산	괴산 동부	55,065	1,364	88 ~ 89	
괴산 (2개소)	사 리	사리 방축	112,397	1,366	87 ~ 88	
	음 성	음성 평곡	67,563	1,073	86 ~ 87	
음성 (3개소)	금 왕	금왕 내송	139,187	3,061	88 ~ 89	
	삼 성	삼성 상곡	163,072	2,213	86 ~ 88	
	대 강	대강 두읍	81,386	1,095	89 ~ 89	
단양 (3개소)	적 성	적성 각기	124,362	4,065	91 ~ 94	
	매 포	매포 상과	148,853	11,590	05 ~ 09	전문

(3) 조성중인 산업단지

① 제천 제2산업단지

제천시 왕암동 일원에 위치한 제천 제2산업단지는 1,299천m²의 규모로 1,5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오는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2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2008년 10월말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단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② 오창 제2산업단지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조성중인 오창 제2산업단지는 충부권의 첨단 업종을 유치하여 충북의 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조성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1,390 천m²의 규모로 2009년 3월 착공하고 2010년 3월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산업용지는 100%분양되었고, 2012년 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③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일원에 속리산IC와 근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9월 지구 지정하여, 2010년 5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1,233억원을 투자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비교적 낙후된 충북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옥천 청산산업단지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는 2008년 5월 지구 지정하여, 2009년 4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 11월 단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완료 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영동산업단지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영동산업단지는 2008년 5월 지구 지정하여 2009년 4월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2010년 1월 보상을 착수하였고 1,063 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완공되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중평 2산업단지

중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계룡건설산업(주)에서 1,311억원을 투자하여 734천m² 규모로 개발 중인 중평 2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산업단지 지구 지정하여 실시계획 작성 중에 있으며 2011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중평산업단지와 연계한 태양광, 바이오산업의 신성장 동력분야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⑦ 진천 신척산업단지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일원에 충북개발공사에서 2,976억원을 투자하여 1,464천m²의 규모로 개발 중인 진천 신척 산업단지는 2009년 5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10년 11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⑧ 원남 산업단지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일원에 조성되는 원남 산업단지는 음성군과 계룡건설 등이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면적은 1,083m²로 앞으로 2012년까지 1,148 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원남 산업단지는 중부권의 급증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⑨ 단양산업단지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에 위치한 단양신소재산업단지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2005년 8월 3일 개발계획을 승인 받고 2008년 12월 15일 공사가 착공되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표 2-6-1.>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현황

(2012. 6. 30 현재)

시군	지구명	면적 (천m ²)	사업비 (억원)	시행 기간	시행자	추진상황	비고
	41	29,001	42,674				
국가	1	4,178	738				
보은	보은	4,178	738	87~16	(주)한화	공사 중	
	40	24,823	41,936				
청주	청주도시첨단	51	643	02~16	청주시장	공사 중	
	태크폴리스	1,528	6,483	07~15	(주)청주테크폴리스	보상준비 중	
	충주제3	129	136	97~12	충주시장	공사 중	
	충주제4	176	161	08~12	충주시장	공사 중	
충주	녹색밸리	200	329	09~13	(주)MIK	공사 중	
	충주DH	78	52	09~12	동양제약(주)	공사 중	
	충주만정	50	17	09~12	(주)충주산업	공사 중	

	테크원시티	251	201	09~13	파엔디개발(주)	공사 중	
	대신	47	47	11~12	(주)대신시스템	공사 중	
제천	제천제2	1,307	1,449	06~12	충북개발공사	공사 중	
	오창제2	1,389	3,084	07~12	충북개발공사	공사 중	
청원	옥산	1,325	2,050	08~12	리드산업개발	공사 중	
	오송제2	3,332	7,696	07~15	충북개발공사	실시계획중	
	성재	549	549	12~14	제민산업개발(주)	보상준비중	
보은	동부	691	1,233	07~12	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중	
	보은	1,280	1,138	07~14	충북개발공사	착공준비중	
옥천	청산	351	421	07~12	옥천군수	공사 중	
영동	영동	998	1,063	07~13	영동군수	착공준비중	
	주곡	149	131	09~12	(주)영동기업	공사 중	
증평	증평2	707	828	09~13	계룡건설산업(주)	보상준비중	
	신척	1,464	2,616	08~13	충북개발공사	공사 중	
진천	문백태홍	36	40	08~12	창영건설(주)	공사완료	
	문백금성	116	17	09~12	금성개발(주)	공사 중	
	초평은암	123	100	09~13	보은개발(주)	공사 중	
	진천산수	1,310	2,184	08~13	산수산업(주)	보상 중	
	문백정밀기계	408	676	10~13	서영정밀(주)외2	공사 중	
괴산	첨단	936	841	06~13	괴산군수	실시계획중	
	건축자재	855	1,000	07~13	디엔씨글로벌	PP협약중	
	감물가구	439	545	08~12	상일디엠씨	PF협약중	
	유기식품	628	1,310	09~15	iCOOP생협연대	공사 중	
	상우	679	1,250	05~14	(주)동부하이텍	보상준비중	
	용산	936	980	07~14	음성군수	보상준비중	
음성	원남	1,109	1,148	07~12	워터밀드(주)	공사 중	
	육령일반	64	200	09~12	영성산업	공사 중	
	중부	148	200	07~12	중부공업단지	공사 중	
	감곡상우	75	92	08~11	(주)동인	해체철차이행	
	음성임대	132	145	09~12	LH공사	보상준비중	
	리노삼봉	96	87	11~13	(주)리노삼봉산업(주)	공사 중	
단양	산소재	352	492	04~12	단양군수	공사 중	
	자원순환특화	329	302	10~13	단양군수	보상준비중	

(4)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2012. 6. 30 현재)

시군	단지명	시행자	면적 (m ²)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비고
	계	16지구	27,231	20,081		
청주	청주	청주시	4,099	593	69~89	
	충주1	충주시	1,286	222	79~93	
충주	중원	(주)중원산단	375	304	97~09	
	충주첨단	LH공사	1,992	2,287	03~11	
제천	제천	한국토지공사	1,195	1,090	94~04	
청원	부용	청원군	565	325	90~95	

	현 도	(주)진 료	719	640	91~95 12~13	
증평	오창과학	한국토지공사	9,450	6,720	92~01	
	오 송	한국토지공사	4,628	5,040	97~08	
진천	증평일반	(주)환경사업관리공사	682	864	04~09	
	이 월	SKC(주)	283	313	00~06	
음성	대 풍	음 성 군	435	352	92~96	
	이테크	나트공업	135	65	93~00	
	금 왕	음 성 군	571	435	94~05	
	음성하이텍	(주)원스틸	397	197	92~05	
	맹동임대	음 성 군	419	634	96~07	

다. 발전방향

충북 산업입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변 및 세계 경제시장 등의 여건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지속적인 적기 공급을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과를 증대시키고 권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충북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첨단산업 중심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용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전략산업 입지에 대한 위치, 공급시기, 자금조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입지설수요 및 각 시군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고려한 탄력적인 산업용지 공급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적기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입지지원팀 임현동 / ☎ 220-3331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성과

⇒ 산업단지 조성 : 788개 기업 입주, 일자리 53,372개 창출

⇒ 농공단지 조성 : 373개 기업 입주, 일자리 15,944개 창출

2.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

가. 추진배경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대 전략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산업별, 지역별 전략적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블로그 운영, 투자환경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한해였다.

나. 주요성과

(1)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에는 744개 기업, 3조 9,51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표 2-6-2.〉 2011년 투자유치 현황

('11.12.31일 기준)

업체 수	유치금액	고용창출
744개	39,514억원	20,522명

※ 투자실적은 공장설립신고 포함

투자유치 금액 중 40.2%인 1조 5,895억원은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전지,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 등 우리도 4대 전략산업에 투자되었으며, 특히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에 박막형 태양전지는 생산하는 현대아반시스 착공('11.5.20.)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었다.

투자 유치한 744개 기업, 3조 9,514억원이 계획대로 투자완료가 되면 지역에 인구유입,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과들은 유럽발 경제위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투자 유치에 환경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된 성과로 충청북도가 국토의 중심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의 경제중심지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투자협약 체결식



(2)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기반 구축

특히 효율적인 투자유치 촉진기반 구축을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3회 개최, 산업별, 지역별 전략적 해외 투자유치 활동(터키, 미국, 독일, 영국)을 전개하였다.

또한, 투자유치 취약지역 담당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와 군 직원간 투자 유치 활성화방안 토론 및 발표 시간을 가져 직원의 마인드 제고 계기가 되었으며, 투자 유치 낙후지역에 오·폐수 처리비용, 물류비용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 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였다. 투자유치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청북도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투자실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투자유치위원회 및 자문단을 정비 운영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앞으로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투자 최적지이며 투자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추후에도 계속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다.

(3) 투자유치 네트워크 다원화 및 홍보 강화

투자유치 전초기지인 「충청북도 투자유치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우리도 4대 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타깃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투자를 상담하는 등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발전 주간행사에 참가하여 홍보부스

운영 및 투자 상담, 성공사례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블로그 운영(충북 투자유치 홈페이지 링크), 외국인 투자유치 네트워크 강화, 투자환경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광고 등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북도가 4통 8달 교통의 허브이며, 투자 최적지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한해였다.

〈표 2-6-3.〉 2011년도 지역발전주간행사 결과

기간	장소	실적
‘11.9.7~9.9(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홍보관 운영 : 3,600명 방문 (투자환경 소개) ○ 외국인 투자상담 : 3개 기업 ○ 4대전략사업, 솔라·바이오밸리 프로젝트 추진 등 충북 현안사업 적극 홍보

2011년 지역발전주간행사



(4) 수도권 및 타시도 기업 이전

2011년에는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이전한 기업이 총 39개사(수도권 6, 신·증설 31, 타 시·도 2)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금융 불안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진다.

〈표 2-6-4.〉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시·군별 현황(2011)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39 (100%)	10 (25)	1 (3)	2 (5)	10 (25)	2 (5)	1 (3)	0 (-)	1 (3)	2 (5)	1 (3)	8 (20)	1 (3)

다. 발전방향

앞으로도 권역별,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4대 전략산업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유치 자문단 정비·인문학을 접목한 감성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일류기업과 강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개정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브로슈어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각종 언론과 KTX 등 홍보매체에 광고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이바지 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팀 맹경재 / ☎ 220-3311

투자유치활동 성과

⇒ 투자유치 : 744개 업체

 투자금액 3조 9,514억원, 고용인원 20,522명

⇒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업 현황 : 39개 업체

3. 첨단 해외기업 유치

가. 추진배경

우리 도는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 융합부품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통하여 핵심원천 기술의 이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용창출 등을 이루고자 전략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집적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806천m²의 외국인투자 지역을 조성하여 일본의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JSR 마이크로 코리아, 린텍코리아, 엘지토스템비엠, SFC, 미국의 보그워너 TTS, 캐나다의 한라스택폴, 프랑스의 현대아반시스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및 자동차 부품 분야, 이차전지, 태양광 등 세계 우수 기업을 유치하였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기업 방문 IR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하였다.

나. 주요성과

'11년도에는 도내에 총 26건 594,624천불의 외국인투자가 신고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도내의 외국인투자 총규모는 940건 5,857,459천불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 터키 등지에서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바이오·태양광·항공MRO 등 우수한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다수의 잠재 유망기업을 방문 하는 등 유수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1년에는 미국의 라파렌, 일본의 JSR, 독일의 JMD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오창 외국인투자 지역에 입주 하였는데, 특히 일본의 JSR은 14백만불을 투자하여 R&D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강화로 최상의 현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충청북도 투자환경 설명회



다. 발전방향

향후에도 기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증액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도 전략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투자유치 분야도 기존 제조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산업인 바이오, 솔라, 항공 MRO 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다양화 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오창,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외국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 외국인투자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오송 지역에는 해외 바이오 선도 기업을 유치, 지역발전 성장동력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것이며,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은 잔여 부지가 소진되어감에 따라 IT분야 외국인 투자 수요에 대비하여 다른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전략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표 2-6-5.〉 오창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현황

기업명	면적 (m ²)	투자금액 (백만불)	생산품	비고
합계	805,954.8	1,903		
오창 (1차) 165,290m ²	JSR마이크로 코리아(일본)	52,800	39	LCD 소재
	MTM옵틱스 (일본)	19,800	4	LCD 부품
	유텍미디어 코리아(대만)	19,960	20	DVD DISC
	스템코 (일본)	72,730	135	LCD 부품
오창 (2차) 330,580m ²	보그워너TTS 오창(미국)	33,000.3	10	자동차 부 품
	린택코리아 (일본)	49,600.9	40	반도체 부 품
	더블유스코프 코리아(일본)	76,000	37	LCD 소재
	한라스택폴 (캐나다)	39,600	60	자동차 부 품
	LG토스템BM (일본)	35,000	15	건 축 자 재
	SFC (일본)	30,000.4	30	OLED
	현대아반시스 (프랑스)	67,378.4	300	박막형 태양전지
오창 (3차) 310,084.8 m ²	현대아반시스 (프랑스)	145,311.5	500	박막형 태양전지
	AGC디스플레이 글라스 오창(일본)	164,773.3	713	LCD 유리기판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외자유치팀 오세동 / ☎ 220-3231

첨단 해외기업 유치 성과

→ MOU체결기업 : 3개 업체

- 투자금액 1억 5백만불, 예상고용인원 460명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가. 추진배경

우량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과 기술 집약화 등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 21세기 신기술 시대를 주도할 첨단 벤처·기술우수중소기업을 중심 육성, 자금여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자금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201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은행협약 자금,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으로 605개 업체 1,794억원을 지원하였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과 기술 집약화 등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 융자대상은 충청북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중 제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 지식기반서비스업,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사업자 등이며,
- 융자조건은 대상 업체별로 10억원 한도이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공공 자금관리기금 융자금리-0.42%)로 상환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011년도에는 157업체에 868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표 2-6-6.〉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업 체 수	2,955	1,987	132	317	191	171	157
지 원 액	1,596,155	994,396	88,115	206,534	110,244	110,017	86,849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1981년부터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융자조건은 업체등급별 자율금리에서 2.5%를 감한 금리로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되고, 저리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2.5%는 도비에서 보전하여 주고 있다. 2011년에는 212개 업체 696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표 2-6-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업 체 수	5,312	4,384	169	215	175	157	212
지 원 액	767,782	534,136	30,054	40,892	51,040	42,090	69,570

(3) 벤처·지식산업 지원 자금

- 21세기 신기술 시대를 주도할 첨단 벤처·지식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나아가 거시적 차원의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지식산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읍자대상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대상 기업으로,
 -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 * 우량 중소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이며
- 읍자조건은 대상 업체별로 3억원 한도로 시설자금 3억원, 운전자금 2억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3.0%로서 상환기간은 시설자금 5년, 운전자금 2년으로 2011년도에는 46개 업체에 92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표 2-6-8.〉 벤처·기술우수기업 자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
업 체 수	589	337	40	56	51	59	46
지 원 액	114,081	64,323	8,216	11,230	10,050	11,030	9,232

(4)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 자금

- 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운수업 등 상시종업업 3인 이상 순증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도에 신설 지원하였으며, 업체별로 1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다. 읍자 금리는 은행자율금리 -2.5%로 2011년 29개 업체 50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5) 청년창업 지원 자금

- 예비 창업가들에게 성공 창업의지 고취와 1인 창업기업 지원으로 미래 청년 CEO 양성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신규창업 및 창업 1년 이내인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에 신설 지원하였으며, 업체별로 5천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다. 읍자금리는 3%로 2011년 12개 업체 4억원을 지원 결정하였다.

(6)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원 사업

-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부도어음, 어음수표)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이차보전 형식(1~2%)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149개 업체 84억여원을 지원하였다.

〈표 2-6-9.〉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업 체 수	316	47	120	149
지 원 액	22,175	5,102	8,718	8,355

다. 발전방향

세계경제위기와 FTA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 상황에 대처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창업기업 활성화 및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기업지원팀 이병삼 / ☎ 220-3321



중소기업 지원성과

⇒ 2011년도네 605개 업체 1,79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

- 창업경쟁력강화자금 : 157업체 / 868억 원
- 경영안정자금 : 212업체 / 696억 원
- 벤처지식산업자금 등 : 236업체 / 230억 원

5. 기업애로 해소 및 약소기업 지원 강화

가. 추진배경

도내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를 수렴하고, 기업애로 순회 상담회 및 자문위원 상담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인의 날 운영, 도지사 기업현장 방문 및 기업인 정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성 및 장애인기업 등 소외계층 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주요성과

(1)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 제공

도, 시군, 기업애로지원센터가 현장지원반 13개조를 편성, 700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였고, 권역별 기업지원 시책 설명 및 기업애로 순회 상담회를 9회 실시, 매월 '자문위원 상담의 날 운영'으로 27개 업체 기업애로 해소, 상·하반기 2회 300개 업체 기업애로 실태조사에 의해 기업애로 유형분석 및 시책반영, 온라인기업애로처리시스템 '기업SOS넷'을 도입하여 38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실시간 기업애로를 접수처리하는 등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중소기업 현장 밀착행정을 통한 소통 강화

'11. 10. 25. '기업인의 날 행사'에 500여명의 기업인이 함께 하는 축제의장을 마련하였고, 도지사가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기업인과의 분기별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 현장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경영·기술교류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이업종교류회에 도 간부공무원이 13회 참여하여 중소기업인과 쌍방향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약소기업 지원 강화

13개 여성 및 장애인기업의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센터를 확충하여 여성경제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 12개 업체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기업 전용산단 1개소를 시범 지정하는 등 약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다. 발전방향

대내외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기업 지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기업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시도와 차별화된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우호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자 : 기업유치지원과 투자정책팀 맹경재, 기업지원팀 이병삼 / ☎ 220-3313

기업애로해소 및 약소기업 지원성과

⇒ 2011년 고객맞춤형 기업애로해소 서비스 및 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소기업 지원으로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 기업애로해소 현장지원반 운영 : 700업체
- 기업애로 순회상담회 : 9회 27개 업체
- 기업애로 실태조사 : 2회 300개 업체
- 이업종 교류회 도 간부공무원 참여 : 13회
- 여성·장애인 기업 마케팅 지원 : 13개 업체



제3절 서민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2. 경제 선진화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1. 희망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가.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실업난이 가중되자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금년도 제1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도 2010년 8월 서민일자리대책을 집중 발굴·추진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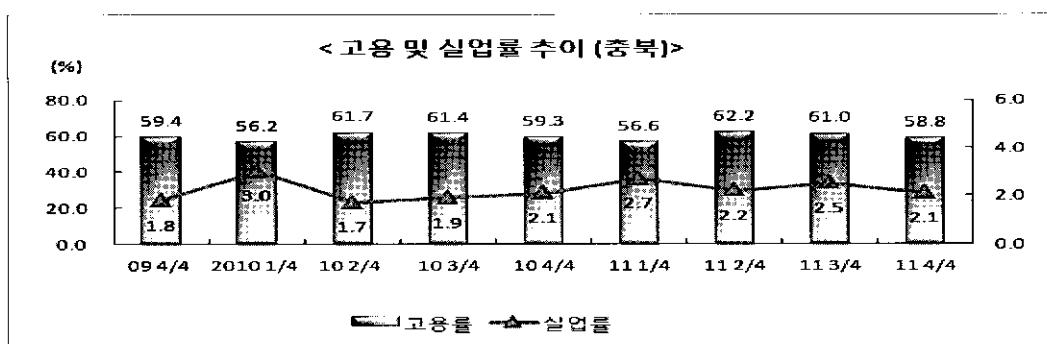
일자리창출 전담 부서인 일자리창출과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 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방면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가 다시 회생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도내 고용동향

우리 도의 연말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도내 12월 실업자는 14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천명(18.5%)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1.9%로 0.4%p 하락하였다.

도내 취업자는 697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천명(1.9%) 감소하였는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직에서 26.3% 및 제조업에서 5.2%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2.6% 증가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3.2%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6.6% 감소하여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는 711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7천명(2.3%) 감소하였으며, 남자는 67.9%로 2.0%가, 여자는 45.4%로 2.3%가 각각 감소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명 증가하였다.



(단위 : 천명, %, %p)

구 분	'10 12월	'11 12월	'10.4/4 분기	'11.4/4 분기	전년동월대비		전년동분기대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 인구	1,242	1,259	1,241	1,257	17	1.3	16	1.3
□ 경제활동인구	728	711	752	754	-17	-2.3	2	0.3
(참 가율)	(58.6)	(56.5)	(60.6)	(60.0)	(-2.1)	-	(-0.6)	-
○ 취업자	711	697	736	739	-14	-1.9	2	0.3
(고용률)	(57.2)	(55.4)	(59.3)	(58.8)	(-1.8)	-	(-0.5)	-
○ 실업자	17	14	16	16	-3	-18.5	-	-
(실업률)	(2.3)	(1.9)	(2.1)	(2.1)	(-0.4)	-	(-)	-
□ 비경제활동인구	514	548	489	502	34	6.5	14	2.8

다. 주요성과

늘어가는 실업률 해소와 취업난 극복을 위하여 서민일자리창출 및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10년 8월까지 추진한 일자리사업이다.

희망근로사업은 12개 시·군에 연중 참여인원 4,000여명이 참여했던 대규모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비만도 200억원(국비 161억원, 도비 17억원, 시·군비 22억원)이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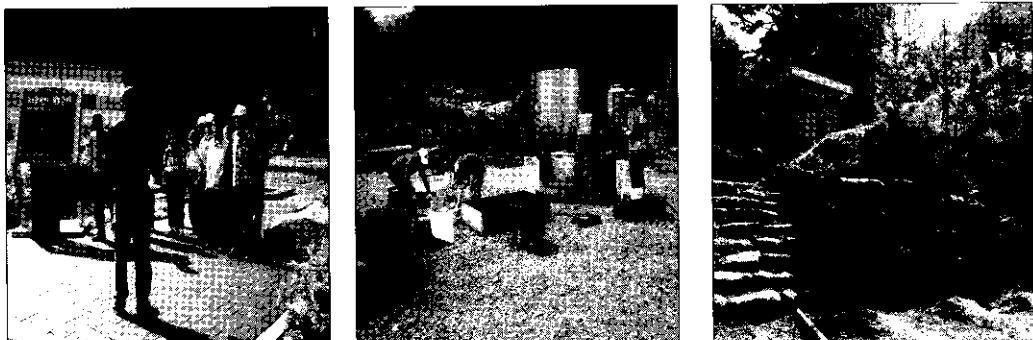
희망근로사업은 경제위기하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경제 위기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약

4,000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임금의 일부(30%, 총 117억 원)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양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등 친서민 사업(4종), 생산적사업(6종)의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수해 시에는 수해복구에 적극 참여하여 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한시적 일자리사업이었던 희망근로사업 종료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역중심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Post-희망근로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1년도 1월~12월까지 시행되었는데, 당초에는 2,000여명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참여대상자를 모집해 선발한 결과, 동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 이보다 150%가 증가한 3,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도내 270개 사업장에 배치돼 근무하며, 1일 3만5000원의 급여와 함께 4대 보험 가입,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가 적용되었다.

한시적 생산적 사업유형(4),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4)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에서는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 지역 향토자원조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특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11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98억원으로 재원은 도와 시군

의 경상경비 및 축제·행사성 예산 절감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기존에 희망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승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기업수요 맞춤형교육과 인턴근무, 채용알선 등 기업구인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턴제 등 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다.

2) 도내 사회적기업 육성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기업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사회적 기업은 고용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낙후지역 재생과 같은 부문에서 활동하면서 시민사회 진영의 새로운 실천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2009년 5월 제정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충북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14년까지 도내 사회적기업 100개 발굴을 목표로 2010년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는 조직을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5~30명이내의 신규 고용인원 1인당 1,04천원의 인건비 21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34개소에 64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는 미국의 사회적 기업 루비콘 제과 관계자의 말은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써, 충북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점차 확대됨으로써 도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업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마을기업 육성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으로 발굴·육성할 필요성에서 그동안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오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주도로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의 고용문제와 소득 창출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며, 2010년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시작되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11년도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발전 연계한 사업이며, 2010년에 선정된 5개의 사업중 4개 사업이 2011년도에 재선정 되었고 신규로 11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신규 선정된 마을기업은 사업당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1개소에 55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재선정 마을기업은 사업당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4개소에 12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가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취약계층, 귀농인, 다문화가정 등의 인적자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로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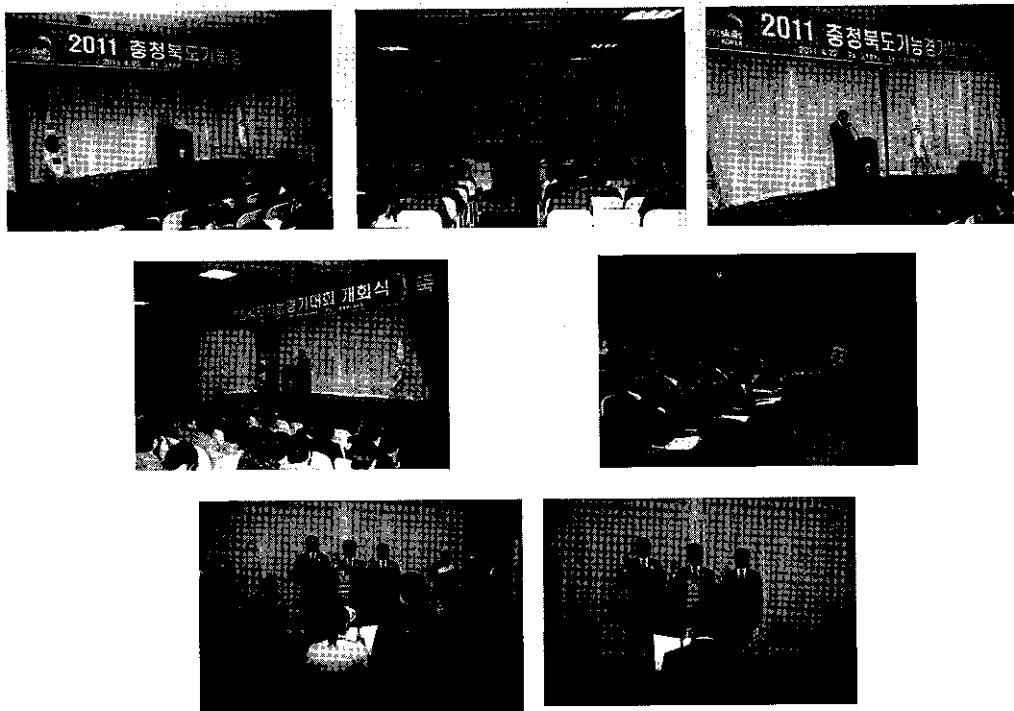


〈〈마을기업 주요 성과〉〉

4)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청주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2011년 충청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37개 직종 45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각자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겨룬 결과 136명(금메달 37, 은메달 37, 동메달 35, 우수 27)이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1 충청북도기능경기대회 모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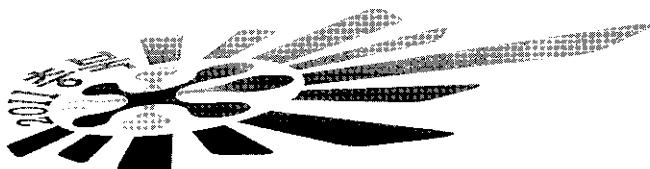
또한 1982년, 1996년 이후 15년만에 우리 도에서 세 번째로 개최한 2011 충청북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8월 30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개최되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등 4개 시군의 청주공업고등학교, 충북공업고등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충주공업고등학교, 제천산업고등학교, 열린경기장(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로울러스케이트장) 등 6개 경기장에서 16개 시·도의 1,896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총사업비는 141억원으로 도 30억, 교육청 57억원, 국비 54억원이

투자되어 전국 기능인들의 화합의 큰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고, 대회 성공기원 콘서트(8.20), 대회 성공기원 오페라 개최(8.28~29), 개회식(8.30), 축하음악회(8.30), 경기참관(9.1), 충북문화체험행사(9.4), 폐회식 및 시상식(9.5)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충청북도, 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는 대회 개최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대회 운영, 경기장 준비, 행사 개최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역대 어느 대회보다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우리 도는 36개 직종에 105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룬 결과 금메달 5, 은메달 10, 동메달 7, 우수상 11개를 수상함으로써 2000년 이후 최고의 성적인 전국 시도종합순위 4위를 기록하였다.

대회 개최결과 우리 도는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성화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최신 시설구축과 도내 관광자원의 홍보,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투자증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우수한 대회 성적을 거양하여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

□ 심볼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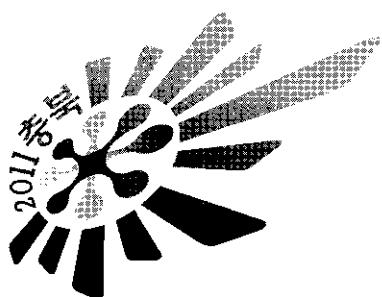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The 46th National Skills Competition

□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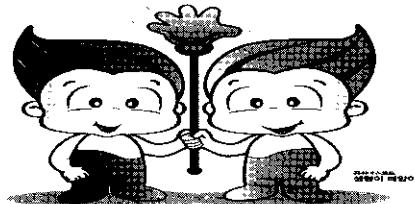
꿈을 안고 충북으로,
기술 뛰쳐 세계로!

□ 엠블럼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표현함
- 생명을 상징하는 세포를 단순화한 이미지와 이를 회전 시켜 태양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중심축을 따라 회전하는 기능의 톱니바퀴임
- 솔라산업과 바이오산업으로 세계 중심에 선 충북과, 역동적으로 임하는 전국 기술인들을 상징함

마스코트



-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표현한 캐릭터
- 도 공식캐릭터 바르미와 고드미를 응용
-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 성격을 가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준비위원회 개최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흥보대사 위촉식



충북선수단 발대식



개회식



개회식(선수단입장)



개회식(개회선포)



기술위원회 및 환영리셉션



주요인사 경기참관



경기장면(1)



경기장면(2)



경기장면(3)



경기장면(4)



경기장면(5)



경기장면(6)



시상식



폐회식(폐회사)



폐회식(단기이양)



선수단 해단식(1)



선수단 해단식(2)



선수단 해단식(3)



4) 구인구직자 연계사업 추진

도내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일손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인구직자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2010년에 개소된 충북일자리지원센터의 전문성 보강으로 도민들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를 한층 강화하였다.

‘충북 일자리 지원센터’는 취업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매주 일자리발굴단 운영하여 발굴된 기업정보를 홈페이지 등재하는 등 구직자에게 신속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7개 학교 41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구인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10회)하는 등 효율적인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과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 해소 등의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구직자 2,847명에게 취업을 지원해 주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내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대규모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직자에게는 다양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의 기회를, 구인업체에는 우수인력을 발굴·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월 청주체육관 및 충주체육관에서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인업체별 부스운영을 통한 즉석 현장면접 및 전문가 취업 컨설팅, 무료사진 촬영,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월 20일 청주체육관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에서는 154개 업체가 참가하고 3,5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여 820명의 면접을 통하여 318명이 채용되었으며, 11월 3일 충주체육관에서 개최된 취업박람회에서는 111개 업체가 참가하고 1,600여명의 구직자가 방문하여 432명의 면접을 통하여 240명의 채용결과를 내며 성황리에 끝났다.

행사장에는 구인업체 외에도 고용관련 기관단체가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 진행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구직자들에게 구인시장 정보와 취업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력 있는 인력시장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6-10.〉 취업박람회 개최실적

(단위 : 명/건)

구 분	참 여	가 채 용	비 고
2002	6,107	931	
2003	3,425	600	
2004	2,845	388	
2005	2,234	760	
2006	5,327	580	
2007	4,600	592	
2008	5,221	416	
2009	4,210	494	
2010	4,608	493	
2011	5,240	558	

라. 발전방향

올해에는 실업난 가중과 행정기관 주도하의 일자리사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 등의 정책위주로 일자리지원 중심의 정책 위주로 일자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새로운 체계의 일자리창출 사업이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일자리창춘이 주목되고 확대되는 과제인 만큼 향후 국내외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을 축소하고,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항구적인 지역일자리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장기적인 서민경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중인 직접 일자리창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이나 공통기준 설정 등 체계적인 관리 및 노인·청년 등 참여대상별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을 세분화 하는 등 일자리 참여대상별 사업체계의 전문화·다양화와 중앙부처·지원대상별 각각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기관간 연계 및 정보공유 강화로 좀 더 효율적이고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일자리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총괄팀장 김종현/ ☎ 220-3361

일자리창출 추진 성과

⇒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창출

- 희망근로 프로젝트 : 3,835명
- 공공근로 : 정보화사업 등 4종 1,720명
-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3개소
- 일용근로자 무료 새벽급식 지원 : 20천명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2,924명, 98억

⇒ 청년실업 해소 취업프로그램 지원

-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 사업 : 120명
- 기업 맞춤형 인턴제 : 30명
- 취업박람회 개최 : 2회

⇒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 30개 업체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34개소

⇒ 2011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및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4.20~25)
- 2011 충청북도 제4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8.30~9.5)

2. 경제 선진화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가. 추진배경

경제 선진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무분규 청정 충북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2회 및 실무협의회 22회 운영하였고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을 13회에 644명을 실시하였고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노사협력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37명 표창하였고 400명과 함께하는 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해 7시군 66,000천원을 지원하여 지역별 노사 화합행사 및 평화협정체결을 유도하였다.

또한 민주노총 충청북도지부의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협의하여 지사님 접견을 추진하였고 지역 노사안정을 위한 조건 없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2011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표창과 포상금 46백만원을 받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다. 발전방향

노사분규 선제대응으로 무분규 청정충북 실현을 목표로 지역 노동관계의 조정 지원과 제휴를 통하여 노사민정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2011년도는 복수노조의 정착을 비전으로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초기기업단위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과 합리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련하여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작성자 : 일자리창출과 노사협력팀장 신동석 / ☎ 220-3391

노사협력 추진 성과

⇒ 노사정포럼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 38회

-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2회, 충북노사정포럼 실무추진협의회 22회,
- 노사정포럼운영위원회 : 19회

⇒ 노사교육 및 연수 지원

-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 방문교육 : 13회 644명
- 신임노조간부 및 노조간부 세미나 : 2회 100명
- 생산현장 근로자 선진국내 산업현장 비교연수 : 제주도 42명
- 노조간부 국외 산업현장 비교연수 : 태국38명, 베트남 12명

⇒ 근로자 행사지원

-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표창 : 37명표창, 800명참석
-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 400명 참석

⇒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 활성화 : 7시군 66,000천원

- 지역별 노사 화합행사 및 평화협정체결 유도



제4절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신산업 육성

1. 신성장 동력 중심의 미래산업 선도
2.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
3.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
4.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녹색에너지 보급



1. 신성장 동력 중심의 미래산업 선도

가. 추진배경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현의 핵심분야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신성장동력 육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전국 유일의 광역형 태양광산업 특구지정과 더불어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민선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녹색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을 집중육성하고 태양광 시설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1)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조성

우리 도는 지리적 접근성이 유리한 교통망의 중심지로 태양광 부품소재의 생산·보급 기지화가 가능하고, 수도권에 인접하여 물류비용감소, 관련산업인 반도체의 인프라가 우수하여 태양광산업을 육성하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좋은 조건에 있다.

민선 5기 출범이후 비전2014 선포식을 통해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균형발전과 더불어 청주공항 활성화사업과 함께 3+1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솔라밸리 조성은 충청북도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태양광산업을 선정하고 지원 기관, 연구기관, 기업들이 집적화 되어 세계적인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조성을 위해 추진한 태양광 산업 특구가 지난 4.22일 지정됨으로써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큰 추진동력이 되었다. 이와 함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추진 사업중 하나인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폐거를 이룩하기도 하였다.

또한 태양광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한 국책기관 집적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생산기술 연구원이 8월 개소하여 도내 기업에게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태양광기업제품

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기술 연구원 태양광센터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 협의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함께 도내 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내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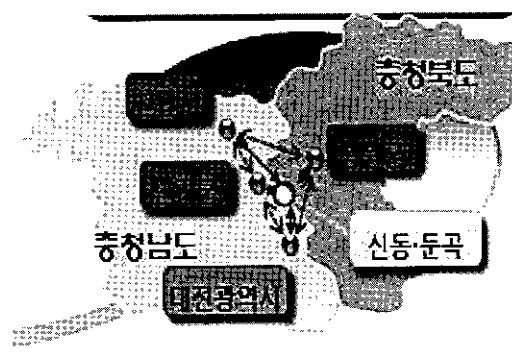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에 공모해 선정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53억 도비 150억원 등 총사업비가 203억으로 1차년도('11.8 ~ '12.6) 국비 21.5억 도비 45억, 2차년도('12.7 ~ '13.6) 국비 21.5억 도비 35억, 3차년도('13.7 ~ '14.6) 국비 9억 도비 7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2011년 12월 현재 광원분석기, 셀 시뮬레이터, 셀모듈 소재 노화시험기, 모듈효율 분포측정기, 기계하중시험기 등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2차년도 사업부터 실시 설계 등 건축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2014년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완료 될 예정이다.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총청권 조성

정부 R&D 투자확대로 외형적 과학기술 성과는 크게 증가 하였으나 질적 수준 및 기초연구 여건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방(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기초역량에 기반을 둔 창조적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20~30년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국가비전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5.16일 선정됨으로써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기능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연구단지 Science-Biz Plaza 구축, 과학벨트투자펀드조성, R&D 및 사업화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다. 발전방향

충북도는 아시아 솔라밸리 충북조성을 위해 기업체 지원 및 인력양성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태양광 테마파크 조성, 솔라시티 조성 등 다각적인 생활밀착형 에너지 체험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거점지구와 연계한 발전방안 마련, 기능지구 유관기관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촉진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솔라밸리팀 김상규 / ☎ 220-3421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성과

- ⇒ 2011년까지 총 112개소에 450억원을 투자
-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그린빌리지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등 보급 확대
- ⇒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설치 확대
- ⇒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
-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선정

2.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

가. 추진배경

정부는 90년대 후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는데 우리 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강한 지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2단계(‘08 ~ ’1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2단계 사업의 기본방향은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획-집행-평가 등 사업추진 전(全)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다. 사업내용은 ‘반도체·전자부품과 바이오 중심의 Bio-IT 융합산업 메카 육성’을 사업목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571억원[국비 935(65.1%), 지방비 503(34.9%)]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유형별로는 H/W적 인프라 구축보다는 기술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등 S/W사업에 집중 투입하게 된다.

〈표 2-6-11.〉 사업별 5년간 투자계획은 표와 같다.

구 분	합 계	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기획단
합 계	1,571.4 (100%)	505.6 (32.2%)	682.9 (43.4%)	86.4 (5.5%)	232.5 (14.8%)	64 (4.1%)
국 비	935.1 (59.5%)	252.8	465.3	60	113	44
지방비	452.6 (28.8%)	252.8	46.9	26.4	106.5	20
민 자	183.7 (11.7%)	-	170.7	-	13	-

(1)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인력양성 지원

전략산업분야 현장 기술 인력의 경쟁력 강화와 예비인력의 지역정착률 향상을 위하

여, 바이오산업분야, 반도체산업분야, 차세대전지분야, 전기전자융합부품분야, 공통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인재양성을 수행하였다.

기획 및 모니터링, 수급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로드맵 작성, 전략산업별 현장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취업연계 예비인력양성을 운영하는 등 주요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2008년 1,140백만원, 2009년 2,160백만원, 2010년 1,410백만원, 2011년 1,74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충북지역의 전략산업분야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내 우수기술 인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연계프로그램은 도내 전문 학사, 학사를 대상 인턴십과정을 지원하였고, 석·박사 인력에 대하여서는 우수기술인력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전략산업 변동추이에 따른 인력수급 체계 구축 및 산업인력양성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화를 중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충북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

(2)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지역 내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에 따라 IT, BT 및 기업경영분야의 전문연구인력 등을 구성원으로 2003년 2월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이 설립되어, 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 충북TP내 정책기획단으로 조직과 기능이 통합되었다.

충북산업발전 로드맵을 수립 ‘4대 전략산업 세부특화분야’를 선정 완료 하였으며, 지역특화 IT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기획단은 충북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전략 기획, 산학연관 연계강화 및 R&D협력체계 확립, 산업경쟁력 증대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기반화립, 전략산업의 기술발전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제협력 체제 구축 및 선진역량의 흡수활용, 지역 내외 R&D과제 도출 및 평가, 지역 내 산학연 주체의 R&D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오송·오창이 기능지구로 선정됨으로써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확보하였으며, 충북 북부권 한방 바이오 고부가가치사업, 중부권 융합기계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전략, 남부권의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및 사업발굴 등 기초생활권 광역연계사업 발굴 및 육성전략을 수립하였다. 신지역발전 현안대응으로 통해 지식경제부의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유치를 통해 3년간 26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충북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으로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창업” 중심의 충북산업 개편을 통한 향후 충북의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2012년 충북산업진흥계획 수립으로 15.7억원의 국비를 인센티브로 추가 확보하였다.

다. 발전방향

BT산업과 IT산업의 융합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수행, 혁신주도적 지역 성장 가능성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충북산업 발전비전 제시, 지역 및 주력산업과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바이오, 차세대 전지, 반도체,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4대 전략산업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지역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산업정책팀 한수환 / ☎ 220-3411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성과

⇒ 지역인력양성 : 2008년 1,140백만원, 2009년 2,160백만원,

2010년 1,410백만원, 2011년 1,747백만원을 지원

⇒ 지역 인프라 확충 : 중부 신도시·충주기업도시, 남부지역 발전방안 마련으로 자립적 특화 발전과 인프라 확충

3.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가. 추진배경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20세기의 산업구조가 제조 장치산업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21세기의 산업은 정보화와 지식기반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 또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일수록 GDP에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무형자산의 중심은 특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지식재산이며, 이의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은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에 지역의 지식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동력으로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산업육성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르는 산업간 사업간 연계에 주력하여 지역산업 육성의 내실화를 위해 지역산업 특성화, 산학연이 함께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한 R&D 지속 추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업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하였다.

나. 주요성과

(1)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특허청의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반구축 사업에 충청북도가 참여하여 충북지식재산센터를 사업 주관기관으로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통하여 R&D투자 방향 설정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특허종합정보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사업을 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지역디자인 가치제고사업 및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12억원,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 6억원,

지역디자인가치제고사업 4억원 등 총 22억원(국비 11억원, 도비 11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에서 권리화, 사업화에 이르기 까지 One-stop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특허정보 컨설팅상담 841건, 선행기술조사 340건, 특허출원비용 지원 332건, 특허기술 홍보물 제작지원 18개 업체, 맞춤형PM 지원 15개 업체,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지원 12건, 브랜드 리뉴얼개발 권리화 6건, 브랜드 출원비용 지원 204건,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권리화 출원 15개 업체, 디자인 출원지원 125건을 지원하였다.

또한 시공간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위하여 산업체재산권 관련 전문가 26명을 상담역으로 위촉하여 도내 전 지역에 대해 12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는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실을 운영하여 294건을 상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2)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운영

공공 및 민간 기술거래 기관간 네트워크체계 확립으로 기술거래 촉진 및 기술 컨버전스 융·복합 기술이전의 적기 실현을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전담인력 4명, 참여인력 7명 등 충북기술이전센터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도내 권역내 기업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을 2010년부터 5년 동안 추진 할 계획이다

업종별 지역별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민간기술거래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패키지 기술이전 등,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에는 사업비 6.3억 원(국비 4.3, 도비 1, 충북TP 1)을 투입하여 사업주관 충북테크노파크 참여 민간기관 마크프로와 특허법인 다나, (주)PSMB 등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65건(28억원), 기술사업화 62건, 기술금융 연계 4건, 기술수요 기업 525건, 이전희망 기술 230건, 기술평가 10건, 네트워크 협력 및 활용 6건, 기술이전 사업화 유관기관 연계 및 전문가 활용 15건을 성사시켜 지역의 대표적 기술이전 거래 지원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3) 산학협력 확산사업 추진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과 산학협력 지원체계 개편으로 산업단지 연구개발 지원기능 및 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09년 7월부터 충북대학교와 충청대학교 주관으로 산전정밀 등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충북대에서는 2011년 사업비 26억원을 투입, 기술개발 총 12건 (부품분야 5건, 소재분야 3건, 환경분야 4건), 기술지도 26건, 첨단기기분석세미나 6회, 캡스톤디자인 10개학과 285명 참여, 공동장비 활용 25건 등

의 실적을 거양하였음.

충청대학에서는 2011년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기업맞춤형 전문학과(트랙학과) 운영, 공동기술개발 42개 과제, 기족회사 86개 업체 참여로 기술지도 38건, 공동장비활용 9건, 현장실습 25건, 기술지원 35건, 산학협력체결 78개 기업 운영, 진로·취업지원 체제 구축 등을 수행하여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였고 산학협력을 통해 참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이룩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

첨단 BT기술과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접목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BIT융합분야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체 및 대학, 연구소 등을 연계하여 지역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BT와 IT융합 전문연구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지역거점연구단 육성사업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년간 30,914백만원이 지원되어 바이오정보 및 질병진단시스템 구축,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개발, 바이오전자소자 및 응용기기 개발을 통해 열악한 지방 연구인프라를 개선 및 고도화함으로써 2011년에는 3단계1차년도로 SCI(E)급 학술논문 21건 등재, 지식재산권 11건 등록, 산업체 기술이전 5건, 고급연구인력양성 석사 10명, 대형연구장비 원자총 증착장비 1건 구축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8,183백만원을 투입하여 21세기 지식산업시대 준비를 위한 지역 우수대학원 중심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산업 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충북대학교 BK(두뇌한국) 21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충북대 BK21사업단 중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육성분야는 BK21충북정보기술, 바이오토피아차세대약학기술, 바이오농업기술실용화, 동물의료생명과학, 자원순환형환경도시 기술개발 사업단으로 2011년에 사업비 50억원(국비 37, 도비 1.1, 기타 11.9)을 투입하여 고급 연구인력양성에 석사 350, 박사 16명, 석박사통합과정 16명, 신진연구인력 30명 해외연수 77건 109명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사업화 10건, 기술 이전 11건, 참여교수의 SCI(E)논문 292건, 참여대학원생 논문발표 441건 및 학술발표 964건 지식재산권 출원 96건, 등록 58건의 성과를 이루었다.

(4) 산·학공동기술개발 운영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 대학, 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의 전문기술 인력과 장비를 활용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2010년도 사업으로('10. 6월 ~ '11. 5월)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충주대학교, 세명대학교, 건국대학교, 극동대학교, 충청대학, 주성대학, 충북도립대학, 대원대학, 강동대학, 한국폴리텍IV대학 등

13개 대학과 79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79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52억원(국비 26억, 도비 13억, 기업 13억)을 지원하여 특히 43건, 상품화 16건, 공정개선 69건, 시제품개발 75건 등 203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거두었으며, 2011년 6월 3일 청주라마다호텔에서 13개 대학 총장 및 유관기관장이 참여한 「산학연 한마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수연구과제 결과 발표와 전시물을 전시하였다.

2011년에는 13개 대학 79개 업체가 참여하여 79개 기술개발과제를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현재까지 57,423백만원을 지원하여 1,798개 업체가 참여, 1,798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5) 전략산업육성 기업지원 기술지원사업 추진

‘90년대 후반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산업 진흥정책 적극 추진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지역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및 경제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으로 ‘강한 지방’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충청북도의 4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용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략산업분야 유망기업의 기술경쟁력, 원천기술 확보 및 제품화를 통한 기업성장 및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을 중점추진 하였으며 보건의료산업체 기술지원을 위해 2011년 534백만원을 투자하여 제품 공동개발 지원 16건, 의약 및 바이오 산업 원료 시생산 지원 4건, 특허출원·등록, 규격인증 지원 11건, 맞춤형 기술지도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11건, 첨단바이오 연구·분석 장비활용 지원 518개 업체 1,011건을 지원하여 바이오신약 산업 활성화 및 바이오신약개발 등에 큰 성과가 있었다.

한방바이오산업체 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 602백만원의 사업비로 북부지역 한방 특화 허브 거점 및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한방클러스터 33업체 공동연구개발, 한방기업 공동개발 4개, 우수약초 GAP(13품목 275농가) 인증,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417건, 제품품질검사 64건, 한방관련 회원사 선도기업 육성 지원 및 기술개발, 분석지원, 특허인증지원, 정보관리 지원 등으로 생산성 증대를 통한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반도체산업 기술지원은 2011년에 925백만원을 투입하여 우리도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속 설계검증 지원, Tool 구축, 설계가속화 지원 등 최신고속 설계 검증장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신상품개발지원 78건, 설계 및 역설계 110건, 반도체소자 및 신뢰성테스트 지원, 신뢰성평가 2,851건, 소자성능지원 2,104건등을 지원하였다

전기전자용합부품 및 차세대전지 관련 중견, 종소기업이 전기전자용합 부품기업

185개 업체, 차세대 전지 기업 36개 업체로 다수 분포하나 소재, 부품 공정기술은 해외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체계적 보육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2011년 99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자파 장비 7종23대, 무선장비 1종 9대, 신뢰성테스트 장비 3종 5대 등 구축장비 10종 68대를 활용한 장비활용 7,000건 지원과 CE, FCC, IECKC, KC, 적합인증시험 지원 707건, 기술개발지원 3건 및 국내자동차 규격시험 185건을 지원하였다.

(6)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기업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대학에 기업 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장비활용, 기술개발 및 지도 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여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2001년 5월에 선정된 충북대 생물건강산업개발센터와 성과활용중인 청주대학교의 정보통신 연구센터가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서원대학교 친환경바이오소재 및 식품센터를 포함 4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추진 실적으로 특허출원 228건, 논문발표 533건, 장비활용 209,155시간, 인력양성 8,342명, 기술이전 96건, 기술지도 2,216회, 창업지원 121건, 개발기술사업화 142건, 마케팅지원 1,580회, 장비구축 101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7)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 추진

지역 혁신주체인 산학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 조기구축 및 산학연이 연계된 혁신활동 촉발의 계기 마련을 위해 2004년부터 충북테크노파크의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영동대학교의 “웰빙 기능성식품 혁신프로젝트”, 단양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친환경 에너지 및 에코소재개발 사업” 등 3년간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 까지 세명대학교의 “제천한방산업 육성사업”을 완료하였다.

2007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의 “미니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BIT육성사업”, 충청대학교의 “생물자원(대추)소재 가공식품 육성사업”, 건국대학교의 “충주 사과 가공 진흥 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2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충주대 “실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충주지역 파스너산업 역량강화사업”과 세명대학교의 제천 한방산업 육성사업의 성공으로 2단계 포스트 RIS사업으로 연계된 “제천약초 고부가가치화사업”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12개 전 시군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고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발전포럼사업이 14개 사업에 국비 359억원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역혁신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다. 발전방향

지역경제 성장 기반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주체인 산학연의 연계·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 조기구축 및 산학연이 연계된 지역연고산업 등을 발굴 및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신성장동력팀 신철호 / ☎ 220-3431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성과

- ⇒ One-stop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육성
- ⇒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로 강소기업 육성
- ⇒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로 지역별 전략산업 성장 기반 구축
- ⇒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및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 추진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로 지역 발전 거점육성

4.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녹색에너지 보급

가. 추진배경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현의 핵심 분야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각종위기에 노출된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계안정 및 에너지안전 수급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1)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통하여 미래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에 앞장서 왔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1마을당 10가구이상이면 지식경제부 공모 후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에너지원별 설치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은 245가구를 설치하였다. 그린빌리지 사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물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국가 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기반 조성에 한 축을 마련하고 있다.

〈표 2-6-12.〉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98.1.1-'11.12.31.)

계(개소)	태양열	태양광	폐기물	지열	소수력	복합	기타	사업비 (백만원)
112	31	61	8	6	3	1	2	45.058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육성 및 보급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에너지원

에 따라 태양광, 소수력, 지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설치해 나가고 있다. 2011년까지 총 112개소에 45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된다.

〈표 2-6-13.〉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11.12.31일 기준)

시군별	마을명	가구수	원별	비 고
계	9개마을	245		35가구 사업포기
청주시(평동)	홍덕 신성	40	태양광	
충주시(문화)	금가 도촌	26	태양광	
충주시(문산)	살미 문강	38	태양광	
충주시(두담)	이류 두정	33	태양광	3가구 사업포기
제천시(신현)	덕산 신현	40	태양광	
청원군(연꽃)	강내 궁현	21	태양광	
청원군(오박사)	현도 시목	11	태양광	
보은군(기대)	마로 기대	18	태양광	
보은군(하장)	탄부 하장	18	태양광	

〈표 2-6-14.〉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98.1.1-'11.12.31.)

계	'09	'10	'11	비 고
가구수	1,000	300	377	323
사업비 (백만원)	19,356	8,370	5,138	5,848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

1단계 사업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영세가정을 대상으로 전기 제반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5천여 가구가 수혜를 입었다.

2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세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총 9,000세대 실

시를 목표로 정하고, 원년인 2009년도에 1,500세대, 다음해인 2010년에 1,798세대, 2011년 1,798세대에 대해 전기 관련시설의 무료안전점검 실시, 노후전선 교체 및 불량 차단기 교체 등을 하여 줌으로써 생활 안전은 물론 서민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발전방향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도내에 집중 유치하고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의 범도민적 이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194억을 투자하여 1,000가구에 설치하였다. 일반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 보급 확대는 물론 태양광산업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국제적 경제위기, 고유가고물가 시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동참할 예정이다.

작성자 : 미래산업과 자원관리팀 최석렬 / ☎ 220-3451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 성과

-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태양의 땅 충북 실현
- ⇒ 태양광 발전시설 및 주택 보급으로 태양광산업 내수시장 활성화 기여
- ⇒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가구 등 10,269세대
수혜로 실질적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제5절 수출 200억불 달성 기반 강화

1.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리 외교 추진
3. 해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1.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

가. 추진배경

2011년 충청북도는 세계시장의 수요 감소, FTA 확산과 비관세장벽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고유가 등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국제통상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별로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분야 42개 사업,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분야 16개 사업, 국제통상 인프라강화 분야 10개 사업을 3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러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68개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한국수출보험공사, (재)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등 수출유관기관과 협력 지원체계를 갖추어 수행하였다.

한편, 2011년 충청북도의 총수출액은 121.7억불로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고, 총 수입액은 86.0억불로 전년대비 40.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35.7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충청북도의 10대 수출국은 중국 29.8%, 홍콩 13.4%, 미국 10.8%, 일본 10.5%, 대만 8.8%, 싱가폴 4.5%, 인도 1.8%, 말레이시아 1.4%, 태국 1.4, 베트남 1.3% 순이다. 수출 상위 10대품목은 반도체 30.1%, 광학기기 9.1%, 전전지 및 축전지 7.7%, 플라스틱제품 6.1%, 기구부품 4.8%, 자동차부품 3.5%, 무선통신기기 3.1%, 전선 2.7%, 컴퓨터 1.9%, 기호식품 1.6% 순이다. 또한 10대 수출기업은 (주)하이닉스반도체, (주)엘지화학, 엘지전자(주), (주)심텍, 매그나칩반도체(유), 한국다우코닝(주), (주)파워로직스, 엘에스산전(주), (주)삼동, 미래나노텍(주) 순이다.

나. 주요성과

(1)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 분야

2011년 충청북도는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분야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충북우수상품전 개최사업, 충북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해외마케팅사업은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KOTRA 및 무역협회와 협력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바이어 섭외 등을 통하여 추진하였다.

충북 해외무역사절단은 3월 CIS 무역사절단(알마티, 타슈켄트,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서남아 무역사절단(첸나이, 카라치), 중남미 무역사절단(리마, 과테말라, 부에노스아이레스), 말레이시아 무역사절단(쿠알라룸푸르, 페낭), 북미 무역사절단(LA, 벤쿠버), 동유럽 무역사절단(이스탄불, 부쿠레슈티, 프라하), 중동 무역사절단(테헤란, 카이로), 일본 무역사절단(동경, 나고야), 터키-UAE무역사절단(이스탄불, 두바이), 동남아 무역사절단(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 총 10회에 96개 기업을 파견하여 1억 3백만불의 계약추진 성과를 올렸다.



- 일본 무역사절단에 참가해 일본바이어와 수출상담하는 장면 -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사업은 상해 화동교역전 참가를 시작으로 하노이 베트남엑스포, 춘계 중국 수출입교역전, 홍콩 가정용품전, 홍콩 선물용품전, 창원 국제수송기계전,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 홍콩 섬머소싱쇼, 베트남 디지털 엑스포, 길림 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 알마티 건축전시회, 동경 선물용품전, 말레이시아 미용전, 광조우 추계 수출입교역회, 심천 국제선물용품박람회, 홍콩 MEGA쇼, 이후 국제소상품박람회, 부산 한상대회, 필리핀 국제건축전시회, 심천 국제하이테크페어, 두바이 건축자재박람회, 호주 국제소싱페어, 인도네시아 선물용품전 등 총 23회를 운영하여 168개 기업이 1억 5천만불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 충북 우수상품전은 중국의 경제관문인 청타오에서 도내 33개 기업이 참가하여 1,600만불의 계약추진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충북무역상담회는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중국·일본·미국 등 7개국에서 30개사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141개 기업과의 수출상담을 주선한 결과 9천 9백만불의 상담성과를 거두었고, B2B 사이버 수출상담회는 2회 개최하여 23사가 1,800만불을 계약 추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47개사 120백만원,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사업 86개사 140백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조사사업 60개사 50백만원, 해외전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30개사 90백만원, 수출기업 해외광고 지원사업 80개사 40백만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였다.

(2)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분야

2011년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활발히 추진하였다.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촉진화사업 15개사 120백만원, 내수기업 수출전환지원사업 20개사 100백만원, 온라인 타겟마케팅 지원사업 25개사 2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지원사업 10개사 25백만원, 수출확대전략세미나 개최사업, 무역전문정보 지원사업 500개사 40백만원, 충북 통상아카데미 운영사업 107명 25백만원,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사업 60개사 90백만원, 수출기업 CD카탈로그 지원사업 30개사 30백만원, 수출기업 외국어홈페이지 지원사업 20개사 20백만원, 중소수출기업 무역도우미 지원사업 25개사 40백만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0개사 50백만원,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381건 80백만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113개사에 4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3) 국제통상 인프라강화 분야

2011년 충청북도는 통상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중소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국제통상시책 설명회를 1월에 수출진흥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2011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종합추진계획의 정책정보를 충북 글로벌마케팅시스템 (www.cbgms.net)에 게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충북 대표수출기업 20개사를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였고, 충북 글로벌마케팅시스템 홈페이지(www.cbgms.net)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을 인도네시아·일본·홍콩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도내 수출기업의 상품홍보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충북 무역의 날’ 행사, 충북 수출확대 민관합동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마인드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다. 발전방향

충청북도는 2011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제무역박람회 충북무역관 운영사업을 전년도 참가 국제박람회중 성과가 우수한 곳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실적이 저조했던 곳은 신규로 대체하여 추진하였다. 충북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사업은 소비시장이 크고 우리 기업제품의 경쟁력 우위인 지역을 선정하여 파견하였고, 사절단별로 장거리코스인 경우 1회당 방문지역을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늘림으로써 경비절감과 바이어 접촉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마케팅사업 참가 이후 사후마케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전략지역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지원 등 마케팅사업 후속지원에도 노력하였다.

2012년에도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해외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수출실적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기존의 사책을 확대·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보다 발전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작성자 : 국제통상과 아시아팀 김호식 / ☎ 220-3471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성과

- ⇒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 : 42개 사업, 2,130백만원 투입, 790개사 지원
- ⇒ 우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 16개 사업, 780백만원 투입, 1,762개사 지원
- ⇒ 국제통상 인프라강화 : 10개 사업, 138백만원 투입, 760개사 지원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www.cbgms.net-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리 외교 추진

가.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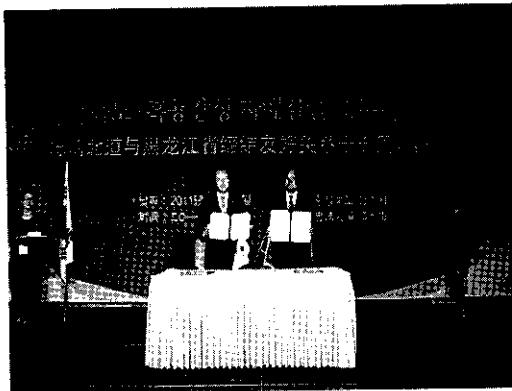
충청북도는 그 간의 자매·우호교류지역과 행정·문화·스포츠·산업경제·기술·학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이해의 틀을 넓히는 한편, 효율적인 국제교류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출정책과 연계하여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또한 미국 등을 방문하여 태양광, 바이오, MRO 사업 등 도 핵심사업을 활성화하였다. 충청북도 국제교류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리 외교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나. 주요성과

2011년 한해 충청북도는 중국 흑룡강성, 일본 암나시현 등 세계 12개국 21개 자매·우호교류지역을 중심으로 우호 경제교류 및 핵심사업을 홍보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행사에 참석하였으며, 민간차원의 교류활동도 적극 지원하였다.

(1) 자매·우호지역과의 우호·경제교류 및 핵심사업 홍보

충청북도는 중국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15주년을 경축하고자, 9월에 흑룡강성 주요 인사 60여명을 초청해 도내 일원에서 기념식, 예술공연, 투자설명회, 임업분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양 지역간 두터운 우호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태양광산업 시장을 개척하고자 도 대표단이 10월에 미국,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태양광 업체와 도내 업체를 파트너링을 추진하였고, 미국 바이오정책 전문기관을 방문, 충북의 바이오산업 현황을 소개하는 등 협력기반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 도에서 개최한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 및 길림성 동북아 청년절 참가를 통하여 도내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였다.



- 충북·흑룡강성 자매결연 15주년 기념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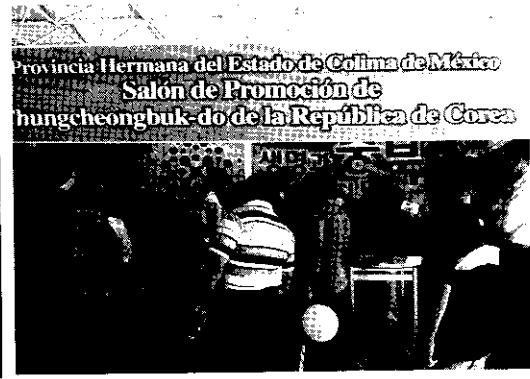
- 멕시코 태양광업체와 파트너링 -

(2) 자매·우호 지역 국제행사 참가, 수출시장 개척

충청북도는 자매·우호 지역의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우호 증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단을 파견하여 수출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에 도내 중소기업 참가를 지원하여 계약실적 60건 4,333천불을, 길림-동북아 무역 박람회에서는 계약실적 26건 5,142천불을, 차이나 아세안 엑스포에서는 계약실적 32건 2,290천불을 계약추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멕시코 폴리마주 산토스 등 박람회에 참가하여 자매·우호교류지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였다.



- 길림-동북아 무역박람회 참가 -



- 멕시코 폴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참가 -

(3) 민간차원의 해외 협력사업 추진

충청북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에서 벗어나 민간차원의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교류형태를 다변화 하였다. 충청북도 남부지역의 와인산업 발전을 위하여 옥천,

영동 와인농가가 자매결연지역인 일본 야마나시현의 와인농가를 방문하여 와인브랜딩 과정, 와인제조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충주 하니마을과 베트남 빈푹성 마을간 민간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 발전방향

충청북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리외교를 중시하여 그동안 활발히 교류한 자매우호지역에 도의 국제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여 거버넌스의 시대에 맞게 해외협력사업의 주체를 다변화해 나갈 것이다.

작성자 : 국제통상과 미주팀 민범기 / ☎ 220-3461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리외교 추진 성과

- ⇒ 충북 ↔ 중국 흑룡강성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
도 대표단 태양광산업 시장 개척 미국 방문
·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 개최 및 길림성 동북아 청년절 참가
- ⇒ 자매·우호지역간 수출시장 개척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길림-동북아 무역박람회,
차이나 아세안 엑스포, 멕시코 폴리마주 산토스 박람회)
- ⇒ 일본 야마나시현 와인농가 방문
충주 하니마을과 베트남 빈푹성 마을간 교류 행정 지원

3. 해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가. 추진배경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인 조화와 노력의 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화’를 심화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지방의 자율성이 중요해지는 ‘지방화’현상으로 이어진다. 이 현상은 냉전시기 이후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벌어진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산 기조와 맞물리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은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가적인 자본과 태협이나 경쟁관계를 맺으며 나름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충청북도 역시 세계 여러 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교역량을 축적하여 지구촌의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역량을 기반으로 세계 곳곳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요령과 방향을 설정,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국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충북을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도 소속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해외 동향 수집 및 도정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교류협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나. 주요성과

(1) 국제 인적네트워크 구축

2011년 충청북도는 국제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글로벌 리더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했고, 제1회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행사에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대표단을 대규모로 초청했다.

10월 10일에 개최된 글로벌 리더 초청 도정설명회에는 주한 외국대사(아르헨티나, 슬로바키아, 앙골라), 상무관, 무역대표, 외국경제부처 관계관 등 26개국 50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충청북도의 대표적 관광지인 청남대에서 도정설명회 및 오찬을 가졌다. 이 외에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견학했다.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1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

부, 중국 본토 언론 및 공연단 등 18개 기관, 83명을 초청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정치협상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등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고, 흑룡강성, 길림성, 광서장족자치구, 절강성 등 충북과 자매·우호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지방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도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외사위원회와 우호관계를 수립했을 뿐 아니라 중국 본토 기자들을 통하여 중국 주민들에게 충북을 알리게 되었다. 나아가 기존 충북과 자매·우호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도 관계를 돋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글로벌 리더 초청 도정설명회 -

(2) 해외정보 수집 및 도정홍보

충청북도는 야마나시현과 상호 공무원 파견 연수 프로그램, 외교부 재외공관 등 해외파견 공무원의 현지 보고, 해외 주요거점 도정 홍보책자 발송 홍보 등을 통하여 해외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였고, 해외에 도정시책을 홍보했다.

충청북도-야마나시현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프로그램은 양 지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도 직원은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간 야마나시현을 방문하였으며, 야마나시현 직원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우리 도를 방문하였다. 우리 도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현황,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합병 및 현 합병 추진 상황, 최근 일본 지방자치제도 변화 등을 연구했다. 야마나시현은 충청북도의 현안사업

(세종시, 오송역, 청주공항 관련)의 추진현황 및 오송역, 공항 등 활성화 정책을 연구했다.

외교부 재외공관 등 해외파견 공무원들은 매월 15일까지 전월업무처리상황 및 익월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정보 등 도정을 수령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및 정보를 수시로 보고하였다. 해외파견 공무원의 보고는 메모 보고와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내 게시판에 게시됨으로써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 공무원들의 신속한 해외동향 파악은 물론 도 외자유치, 수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

<표 2-6-15.> 외교부 재외공관 등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

파견지역	직위	성명	파견기간
베이징중국대사관	행정 3급	최복수	'10. 7. 23. ~ '12. 6. 27.
호주 시드니 총영사관	행정 3급	서승우	'11. 3. 30. ~ '13. 3. 29.
중국 시안 총영사관	행정 5급	이수한	'10. 1. 1. ~ '12. 12. 31.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행정 6급	최병희	'09. 3. 10. ~ '12. 3. 9.
미국 매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행정 6급	홍성욱	'10. 3. 15. ~ '12. 3. 14.
중국 흑룡강성	행정 7급	박선녀	'10. 3. 1. ~ '12. 2. 29.
일본 야마나시현	행정 7급	김지혜	'10. 4. 1. ~ '12. 3. 31.

해외 주요거점에 도정 홍보책자 발송 홍보 사업은 도정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제관계 발전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도정 홍보책자는 국제자문관(31개국 80명), 해외총청향우회(11개국 23개 지역), 세계한인회(18개국 115개 지역) 등으로 매월 200부씩 발송되었으며, 국제자문관 등 해외 DB는 수시관리 등을 통하여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 도정 홍보책자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3) 국제기구와 교류협력활동 강화

충청북도는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실무 위원회에 참가하였으며, 유니세프 후원 성금으로 1,085백만원을 모금했다. 그리고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가하였다.

우리 도는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은천시에서 열린 동북 아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에 참가하여 「생명 · 의료산업분과위원회」의 설치를 제안, 승인 받았다. 동북아시아 지역 자치단체 간 우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동북아시아 6개국 70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사무국, 총회 및 실

무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우리 도는 이 중에서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를 주관함으로서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가능성 마련은 물론, 우리 도가 생명·의료산업의 우위를 선점할 여지를 마련했다.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는 2014년 충북 바이오산업 엑스포 행사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도로서 국제연합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 UNICEF)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동참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후원활동을 추진했다. 4월에 실시된 음성 반기문 전국마라톤 대회(13,000천원), 5월에 진행한 캄보디아 어린이 생존발달 사업(109,650천원)에서 각각 모금한 후원금을 유니세프 측에 전달했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085백만원의 유니세프 후원금을 모금했다. 유니세프 후원금 중에서 정기후원 규모는 962백만원이고 후원자는 6,206명이었다. 수시후원금 규모는 123백만원이었다.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청북도 부안군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 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하였다. 지역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 방안 사례발표, 재해예방 및 복구노력에 관한 특별토론회, 한·중·일 지자체간 교류협력 의견교환 및 친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



-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

다. 발전방향

향후 가속화 될 세계화, 지방화 기조 속에서 '세계속의 충북'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매·우호교류지역과 지속해오고 있는 경제, 문화, 예술, 인적 교류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며 나아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류방안을 연구·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회의 및 국제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생명의료산업의 협력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도내 국제행사에 해외 주요 인사들을 꾸준히 초청하는 등 접촉을 강화하여 정예화된 인적네트워크로 도정 홍보 및 통상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작성자 : 국제통상과 중국팀 유인웅 / ☎ 220-3481

해외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 국제 인적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리더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

- 주한 외국대사, 상무관, 무역대표, 외국경제부처 관계관 등 참석
- 제1회 중국인 유학생페스티벌 중국 정부대표단 초청
- 정치협상회의, 흑룡강성, 광서장족자치구, 길림성 등

⇒ 해외정보 수집 및 도정홍보

도 - 야마나시현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외교부 재외공관 등 해외파견 공무원 매월 보고

- 주재국 수출 및 투자유치, 관광정책 등 정보 동향보고
- 해외 주요거점 도정 홍보책자 발송 홍보 : 매월, 200부

⇒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활동 강화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실무위원회 참가(중국 은천)

-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설치 제안, 확정 : 2014년 개최예정

유니세프 후원 성금 모금 : 1,085백만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전북 부안)